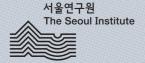
2015-CR-04-06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5-06

동네 서점이 동네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지원



동네 서점이 동네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책임

정지원 출판사 헤드에이크 대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동네 서점, 독립출판서점으로 재탄생 취향공동체로서 동네 문화 창출 유도

동네 서점이 변신하고 있다.

과거 동네 문화의 네트워크 거점을 담당하던 동네 서점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지난 1998년 4,897개에 달하던 전국의 지역 서점은 현재 1,600여 개만 남았다. 3분의 2가 문을 닫은 셈이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 대형서점과의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지만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네 서점의 감소와 함께 동네의 빠른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물리적 차원의 동네 문화가 해체됐다.

최근 동네 서점은 독립출판서점으로 재탄생해 우리의 곁을 다시 찿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새 단장을 한 독립출판서점은 무려 50여 곳이다. 이들 서점은 탄생과 함께 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동네의 상권과 연대하면서 심리적 차원의 '취향공동체'로서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서점 이용자들도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전환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취향공동체로서 풍요로운 동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네 서점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 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서점의 잠재적 이용자인 대부분의 주민 역시 서점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네 서점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주민-상권-학교-정부 등 다자간의 전략적 유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연구의 개요	4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02 동네 문화와 동네 서점의 관계 및 역할	6
1_변화하는 동네 문화 형성과정	(
2_서점주인이 생각하는 동네 서점의 역할과 현실	Q
3_이용자가 기대하는 동네 서점의 새로운 역할	18
03 지속가능한 동네 서점, 다자간 연대 경영사례: '스토리지북앤필름'을 중심으로	28
1_동네 서점과 동네 카페와의 연대	28
2_소비자를 서점경영 참여자로 전환	29
3_문화공간들과의 연대 및 문화행사 주최	29
4_미디어를 활용한 동네 서점 이용자의 증대 및 관리	30
04 정책 제언	32
1_현 마을사업비의 교부방식 전환	32
2_서점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체계화	32
3_할인율 0%의 완전 도서정기체 실시	33
4_동네 서점의 청년고용 지원	33
참고문헌	34
부록	35

丑

[표 1-1] 인터뷰에 참여한 동네 서점 리스트

10

01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01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현재 동네 서점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동네 서점이 급속히 줄어들어 2015년 현재 전국에 1,600여 개만 남았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 대형서점과의 경쟁 속에서도 꿋꿋하게 운영해온 동네 서점들은 이마저도 최근 도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1998년 4,897개였던 지역 서점들은 현재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 최근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되었지만 이것만으로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네 서점이 축소된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서점들은 오히려 전국 각지에 50여개 새로이 생겼다. 독립출판서점은 기존의 서점이 다루는 책과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출판물들을 판매함으로써 대형서점과의 차별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장소, 나아가 문화생산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독립출판서점 역시 서적 판매수익이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동네 서점과 비슷한 경영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동네 서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점주인의 운영전략뿐만 아니라 2년에 한 번은 이주에 대비해야 하는 세입자 중심의 거주문화와 책을 읽지도 사지도 않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

2) 심리적 거리에 준거한 취향 중심적 동네 문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동네 서점의 사례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서점이 동네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동네의 사랑방이자 공공의 문화공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점이 주변의 상권과 연대하여 문화행사를 주최하기도 하고, 동네 미디어를 통해 동네 서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회자되면서 서점 중심의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폭된다. 기속가능한 동네 서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

하는 새로운 동네 서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서점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동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¹ 여기서 '동네 미디어'란 기존의 지역 신문과는 다르다. 기존의 지역 신문들은 (예: 강원일보, 경남일보 등) 시, 도 단위의 큰 지역행사 및 행정 콘텐츠를 다루는 편이다. 동네 미디어에는 작은 규모의 동네 이야기와 사소한 주민의 이야기가 주로 담긴다. 예를 들면, 이태원의 '우사단 신문', 용산구의 '남산골 해방촌' 등이 동네 미디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큰 지역신문에 비해 비정기적 발행형태를 띠는 편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점은 주인이 어떤 책을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주인의 취향과 태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 서점 주인과 서점 공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논 문은 우선 일반서점과 독립출판서점, 테마서점 등 각기 다른 특징의 동네 서점을 운 영하고 있는 주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이들의 운영 방식을 참여 관찰하고자 한 다.² 이를 통해 주인이 동네 서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인이 동네 문화 기여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서점 이용자 및 잠재적 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대 하는 동네 서점의 모습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서점 운영자와 동네 주민 혹은 경영자와 이용자라는 상반된 위치에서 동네 서점에 대해 갖는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동네 서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전략적으로 동네 서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것이다. 나아가 서점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를 참여 관찰한 뒤 서점의 생존전략을 고칠해보고 동네 문화 속에서 동네 서점이 맡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재발견해볼 것이다.

² 동네 서점에 대한 하위분류는 각 서점이 판매하는 책의 특징에 따라 연구자가 분류한 것임을 밝힌다. '일반서점'은 주로 참고서 및 문제집과 베스트셀러 서적을 다룬다. '테마서점'은 특정 장르의 서적을 주로 다룬다. '독립출판서점'은 독립출판물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서점은 동네 서점이라는 상위 집단에 포함되는 동시에 취급하는 책의 종류에 따라 이와 같이 나눠진다.

02

동네 문화와 동네 서점의 관계 및 역할

- 1_변화하는 동네 문화 형성과정
- 2_서점 주인이 생각하는 동네 서점의 역할과 현실
- 3_이용자가 기대하는 동네 서점의 새로운 역할

02 - 동네 문화와 동네 서점의 관계 및 역할

1 변화하는 동네 문화 형성과정

동네란 자신이 사는 집 근처를 일컫는 말로, 마을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마을은 주로 시골에 모여 사는 집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자들에겐 '마을 문화'라는 표현보다 '동네 문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도시 속에 자신만의 동네 문화를 간직한 지역이 있는가? 대도시 속의각 동네는 자연환경을 제외하면 인문환경의 측면에서 거의 서로 비슷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인문환경은 사람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의 한 동네에서도, 땅끝 마을 해남에서도, 우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같은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살 수 있고, 같은 이름의 PC방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거형태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시설에는 찜질방, 카페, 마트 등 공간의 특징은 물론이고 이름마저 동일한 프랜차이 스들이 즐비하다. 이렇듯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으로 고유의 동네 문화를 느끼기힘든지 오래다. 3 도시 간의 물리적 거리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미디어의 발달은 문화를 균질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동네마다 고유한 문화에 기반을 둔 삶보다는 미디어가 구현하고 동질화시켜버린 욕망을 좇아가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과거에는 한 동네의 역사와 개성을 알고 싶을 때, 그 동네의 병원, 도서관, 은행, 서점 등 공공의 장소를 들르면 해결되었다. 이러한 곳들은 쉽게 시라지지 않는 장소일 뿐 아니라 동네 주민이라면 들를 수밖에 없는 생활형 공간들이다. 이런 공간들은 한 동네의 풍경을 오랫동안 구성해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네의 빠른 상업화가

³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간'의 의미는 '장소'와 구분하여 사용된다.

^{&#}x27;공간'은 비어 있다는 뜻보다 '스스로 아무 성격을 가지지 않음'을 뜻한다. 즉, '무자성(無自性: None Self-identity)'이다. '장소'는 우리말로 '곳'이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지형, 혹은 인위로 만들어진 지리적인 실재다. '장소'는 시간이 개입함 으로써 인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진행되면서 동네마다 고유했던 장소들이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또한 상업화와 더불어 땅은 부동산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 버렸다.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정성을 들이더라도, 부동산 소유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들은 정든 공간에서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내몰리는 경우가 잦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뉘고, 그 중 인문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장소'이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주민, 가게, 상인이 바뀌게 되면, 그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해갈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즉 상인과 주민모두 늘 이주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누구도 동네에 기여할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잦은 이주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자기 동네라고 생각하는 곳이 여럿일 수 있다. 특히한 동네의 정신적 수준 또는 문화적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점이 있으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신이 원래 다니던 서점이 있는 곳은 여전히 자기 동네로 인식된다. 미디어와 교통의 발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재편하는 데 일조하였다. 움직임의 재편은 곧 동네 개념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과거에 동네는 물리적 거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동네에는 한 가지 개념이 덧붙는데, 그것은 바로 '심리적 거리, 또는 취향에 근거한 동네'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네란 단지 물리적 거리에 준거하여 자신이 주거하는 곳 주변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나 취향에 근거하여 자신이 자주들르는 장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국 각지에 새로 생긴 독립출판서점은 서점이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의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기보다 독립출판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가 방문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동네 서점보다 훨씬 떨어져 있지만 취향에 맞는 독립출판서점에 정기적으로 들른다.

그리하여 서점은 취향에 근거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재편시킨다. 서점이 하나도 없던 동네에 새로 서점이 생기면, 이 서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동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서점 주변에 디자이너의 스튜디오, 카페, 갤러리, 공방 등 문화적으로 어울리는 공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다. 서점으로 인해 동네에 추가적인 문화공간들

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점 방문객들은 단순히 서점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문화공간들을 방문하고 소비활동을 하면서 동네 문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동네의 공간들은 이제 거주민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동네를 들르는 사람들에 의해 더 적극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동네 문화의 재편과정에서 서점은 물리적 동네와 심리적 동네가 잘 융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점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원주민들의 저항이 적은 상업공간이기 때문이다. 동네에 오래 자리 잡고 있어 원주민들에게 의미 있던 장소가 물러나고 새로운 상업공간이 들어오는 상업화의 과정에서 분명 마찰도 존재한다. 새로운 상업공간과 그곳을 들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의 분위기를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점은 서점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기반으로 비교적 마찰 없이 자리 잡는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점은 동네의 분위기를 문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아우라를 통해 동네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_서점주인이 생각하는 동네 서점의 역할과 현실

서점은 서점운영자의 태도와 취향이 장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서점 공간이 주민이나 방문자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 여겨질지의 여부에 는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서점의 경우, 운영자는 인접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낮은 임대료가 보장되고 풍경이 좋은 위치에 서점을 여 는 편이다. 개업 전에도 물론 주변의 분위기나 상권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만, 서점 이 생긴 이후 대부분 주변에 더 많은 문화공간이 생겨나 서점 주위의 풍경이 문화적 으로 변한다.

다음의 표는 이 연구를 위해 방문조사한 동네 서점들의 목록이다. 다루는 책의 종류, 운영 방식, 서점 위치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10곳을 조사하였다. 속초시 교동의 '동아서점'과 서울 상암동의 '북바이북'을 제외하면, 연구자는 모든 서점을 3회이상 방문하면서 각 서점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식으로 동네와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점은 동네 주민들의 문화적 공간이자 교류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서점 운영자의 취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점 주인들의 목소리가 서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은 분명하다. 다음의 서점운영 현황은 서점주인들의 인터뷰부를 바탕으로 요약 기술하였다.

⁴ 서점 대표들의 인터뷰 전문은 참고문헌과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1-1] 인터뷰에 참여한 동네 서점 a	I# 1-11	인터뮤에	전(연)다	높네	서선	리스트	
--------------------------	---------	------	-------	----	----	-----	--

장소	설립연도	주 판매서적	서점 위치
다시서점	2014년 5월	독립출판물 , 시집	용산구 한남동
도원문고	1981년 1월	문제집, 일반서적	성동구 금호동
동아서점	1956년	문제집, 일반서적	속초시 교동
부이너부	2013년 10월	문학 및 일반서적	마포구 상암동
스토리지북앤필름	2013년 6월	독 립출판물	용산구 용산동2가
오디너리북샵	2014년 10월	독립출판물, 문화예술서적	종로구 성북동
이음책방	2005년10월	인문, 사회, 문학, 예술	종로구 혜화동
프루스트의 서재	2015년 1월	다양한 중고서적	성동구 금호동
피노키오 책방	2013년 6월	동화책, 그림책	마포구 연남동
헬로인디북스	2013년 11월	독립출판물	마포구 연남동

서점은 한 동네의 풍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원래 있던 동네 분위기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서점과 지역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서점은 대체로 거주민의 영향보다 유동 인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서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동네와 서점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다시서점

다시서점은 세 차례 이사했다. 현재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다시서점'은 본래 2014년도 5월 종로4가 지하상기에서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공간지원사업을 통해 싼 임대료로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은 유동인구가 적었고, 이미 양복점, 보석 등 결혼 혼수용품점들로 특화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서점 이용객은 서점주인이 운영하는 SNS를 보고 방문했다. 현재 다시서점은 다양한 손님을 만날 수 있으면서도 서점주인의 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남동으로 이전하여, '초능력'이라는 바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초능력의 팝업 북 스토어로 시작한 다시서점은 한동안 밤에는 술집, 낮에는 서점으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바와 함께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공간을 재오픈하였다.

한남동은 디자이너 및 패션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라 의류, 액세서리, 디자이너 숍이 많이 있다. 패션문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게와 카페에 들르기위해 한남동을 오고 가는데, 서점 역시 이들이 들르는 코스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다. 동네에 대한 관심의 연장으로 서점에 들를 뿐, 책을 산 이가 공간에 오래 머무르거나 책을 통해 동네주민과 소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동네 내에 독립출판물과 시집을 다루는 서점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출판문화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자주 들르는 편이라고 한다.

다시서점의 김경현 대표는 한남동에 거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동네 문화 행사가열릴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여 이제 주변의 젊은 가게주인들과 주민과는 인사를 하면서 지낸다. 서점 운영과 별개로 자신이 사는 곳 근처에 동네 청년들이 모여시작한 이태원 '계단장'이나 우사단로를 중심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기고하는 일은동네 주민으로서 참여한다. 동네에 있는 서점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에게 무언가를기대하는 것보다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눌 수만 있어도 동네에서 함께 일터를 꾸리는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김경현 대표는 말한다. 그는 서점의 생존을 동네 문화와 동네 주민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한남동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숍과 작업실이 즐비하여 그는 이들과 함께 '사이사이 프로젝트' 혹은 플리마켓 등을 열곤 했다. 이는 동네 상권을 알리는 행사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서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시서점은 앞으로 동네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되, 서점 운영자체와 관련해서는 더 특별한 책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 도원문고

1981년에 금호동에서 문을 연 도원문고는 지금까지 3번 이전하였다. 금호동에서 가장 큰 금남시장 옆에 있다가 임대료가 비싸 현재 위치로 옮겼다. 시장 맞은 편 지하 공간으로 이전한 지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다. 도원문고는 문제집을 주로 팔기는 하지만 보통의 동네 서점과 달리 베스트셀러, 신간 등 최신 책과 읽고 싶은 책들이 보기 좋게 추천되어 있다. 전국서점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창연 대표는 "서점은

동네 문화공간이자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원문고가 위치한 곳은 이 근처에 가장 큰 시장과 마트가 있어 가족 단위의동네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등교할 때 학생들이 지나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근처에 학원들도 많이 있다. 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동네라기보다는 10대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이다 보니 서점에 놓인 책들도 이들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원문고는 학생들이 주 손님인데, 들르는 학생중에는 실제로 사장님의 책 추천을 통해 학교나 학원보다 더 넓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심지어 이들은 서점을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로 여기기도 한다. 도원문고의 경험을 통해 동네 서점이 학교나 학원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국어교육이 아닌 서점에서의 독서교육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도원문고는다른 어떤 서점보다 서점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큰 곳이다.

도원문고는 2009년 시낭송회, 2012년 북콘서트를 개최하여 서점이 문화가 흐르는 공간임을 보여줬지만 일시적인 반응에 그쳐 지속할 힘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창 연 대표는 서점 주인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동네 서점이 살아날 수 없으며 이렇게 서점이 사라지는 시대에 동네에 좋은 서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주민이 스스로 알고 아껴주는 태도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3) 동아서점

강원도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동아서점은 1956년 창립하여 최근에 확장 이전하였다. 서점에 오는 이들은 대부분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지만 확장 이전 후에는 관광객의 방문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동아서점은 가족이 대를 이어 경영하고 있다. 이들은 속초시가 전체를 동네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작은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속초는 '동네 서점'보다 '대형서점'에 목말라 있는 실정이라 중형서점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다. 동네 서점으로서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판매와 관련해서는 지역학교 및 지역 학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확장 이전 행사로 커피머신도구입하고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대접하기도 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시행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서점과 카페를 연계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이다. 동네 서점 으로서의 노력과 더불어 SNS를 통해 운영자의 개성과 매력을 담아 새로 들여오는 신간들을 재치있게 소개하는 것 등에 힘입어 서점 방문객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4) 북바이북

현재 상암동에 위치한 북바이북은 생긴 지 2년째이지만 바로 근처에 2호점이 생겼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5년 전 상암동으로 이사 오게 된 서점대표는 방송국, IT 등의 업체들이 이전하는 모습들을 보며 미디어시티로 개발 중인 상암동 만의 특징이 마음에 들어 서점을 열었다고 한다. 서점 손님은 주로 동네 주민과 미디어시티에 근무하는 방송국, IT관련 직장인들이 많다. 북바이북은 독자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서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책리뷰쓰기, 독서 카드 작성, 구매한 책 다시 팔 수있는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참여형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작가강연회, 미니 콘서트, 전시, 강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알하는 유명한 분들이 서점을 방문하여 유명인이 많이 오는 동네 서점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최근에 연 2호점은 소설로만 이루어진 테마서점이고 서점을 들르는 이들이 서점방문 뒤 갈 수 있는 펌과 카페가 근처에 있다.

(5) 스토리지북앤필름

스토리지북앤필름은 3년 전 충무로에서 용산구 해방촌(용산동2개)으로 이사했다. 충무로 시절은 남산한옥마을 옆 3층 건물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고즈넉해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불편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기 편하면서도 시골풍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를 찾던 차에 해방촌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해방촌은 남산인근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경사진 특성 탓에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주택들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풍경을 가지고 있다. 서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점 주인이 원하는 풍경과 분위기를 가졌는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문화공간이 거의 없던 해방촌은 책방이 생긴 뒤부터 금속공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업실, 사진가의 작업실 등 다양한 작업자들의 공간들이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새

로운 책방이 근처로 이사 오기도 했다. 문화 공간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그 변화 양상이 급작스럽지 않고 동네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아직 낮은 편이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인근 녹사평이나 경리단에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해방촌은 오려면 언덕이 가파르고 올라오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한산하다. 그래서 아직은 원주민의 동네 문화와 새로생기는 문화공간의 조화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서점이 처음 해방촌에 자리 잡을 당시, 강영규 대표는 동네주민들과 어떻게 교류하면 좋을까 고민했었지만 여러 시행착오 끝에 섣불리 모두와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마음에 맞는 공간들을 서서히 찾아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콩밭커피'와 함께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지하 워크숍 공간도 함께 쓰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별책부록'이라는 책방이 해방촌으로 이전하였는데 스토리지북앤 필름과 이 책방이 협력적인 관계 속에 함께 쓰는 공간도 존재한다.

스토리지북앤필름은 해방촌 주민보다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거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강의를 듣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6) 오디너리북샵

서울 종로구 성북동에 위치한 오디너리북샵은 지나치게 번화한 곳보다 높은 건물이 적고 한옥이 많은 동네에서 서점을 열고 싶어 지금의 장소를 찾게 되었다.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동네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성업하고 있다. 실제 책을 구매하는 고객은 대부분 SNS를 통해 서점을 찾아오지만 성북동은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이 많은 동네라 어르신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옆 가게와 앞 가게는 젊은 주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오디너리북샵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오래된 동네이니만큼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와 역사도 있어 이를 배워나가고 있다. 동네 행사에도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근처 가게들과 함께 플리마켓을 열기도한다. 주말에는 오디너리북샵과 더불어 옆집 소품가게, 앞집 식당을 동시에 찾는 손님들도 많이 있다.

(7) 이음책방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이음책방은 10년간 약 9,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학로 지적문화의 보고이다. 원래 이음책방의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책방의 존폐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책방을 인수하게 된 조진석 대표는 다른 돈벌이 없이 오로지 서점 운영만으로 건강하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서점이 책 판매 수익만으로는 원활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음책방은 다양한 책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어이것이 서점의 주 수익원인 서적 판매로 이어진다. 인문, 사회,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책들에서 주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고 대형서점에 잘 없는 희귀한 책들도 간혹 비치되어 있다. 서점의 방문객들은 대부분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며 특히 대학로에 자주 올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이라면 이음책방에 자주 들르게 된다. 이음책방은 출판사와 저자들과 직접 연계한 행사들을 많이 주최하는데 그중에서 인문학은 강의와 북클럽은 많은 사람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점 공간 내부에는 별도의 전시공간과 카페가 마련되어 있어 서점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 용이하다. 서점 곳곳에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도 있다. 혜화동 자체가 주민의 비율이 작은 곳이라 동네주민과의 소통은 미미하지만 문화예술공간, 특히 극장이 주변에 많다 보니 연극관련 책이 다른 서점들보다 잘 갖춰져 있기도 하다. 조진석 대표는 서점을 일상에서의 혁명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고 많은 이가 책을 통해 혁명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점의 행사나 모임을 기획하고 있다.

(8) 프루스트의 서재

2015년 1월에 개업한 프루스트의 서재는 금호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았다. 이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한 박성민 대표는 금호동이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서점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다. 그는 헌책방과 대형서점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서점처럼 신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책을 판매하며 여러 가지 테마를 통해 판매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책의 구성이나 희귀한 판본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뿐 아니라 중고책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르고 있다.

원래 달동네였던 금호동은 현재 아파트의 신축이 완료된 곳이 많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상권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변화하고 있다. 동네의 변화를 오랜 시간 목격한 그는 어떻게 해야 동네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이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서점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매주 낭독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전에 이어 그림책 원화전을 준비하고 있다.

(9) 피노키오 책방

2013년 6월 연남동에 자리 잡은 피노키오 책방은 동네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림 책방으로 시작하였다. 시작할 당시에는 서점 근처에 사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책을 사지 않더라도 읽고 싶은 그림책을 꺼내 보고 가고 인사를 하곤 했다. 하지만 연남동이 거주 중심지역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오는 상업지역이 되면서부터 원래 살던 아이들과 가족들은 이사를 가고 현재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되었다. 현재이 책방의 주된 방문객들은 연남동에 들렀다가 우연히 책방에도 들르는 외부인이나, 특별히 그림책에 관심이 많은 이로 구성되어 있다. 피노키오 책방은 서점이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커뮤니티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을 찾고 있다.

(10) 헬로인디북스

2013년 11월 홍대 근처에서 시작한 헬로인디북스는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던 대표가 독립출판물들을 소개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열게 되었다. 이 서점은 현재 연남동으로 이전해 피노키오 책방 옆에 자리하고 있다. 창전동 시절에는 유동인구도 적고 한적한 골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독립출판물의 제작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단골들이 술을 마시러 자주 책방에 들렀다면 연남동의 경우에는 연남동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러 들른 방문객들이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서점의 책 판매량은 늘었지만 서점을 자주 들르는 주민과 소통하거나 책을 통해 진심으로 교류하는 경험은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헬로인디북스는 근처 가게들과 인사를 하며 유대관계를 쌓고 가끔은 피노키오 책방과 함께 서점 유영의 고민을 나누며 동네 서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3_이용자가 기대하는 동네 서점의 새로운 역할

지금까지 서점 운영자의 입장에서 동네 서점과 동네 문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동네 서점과 동네 문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자는 3달에 1번 이상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을 구매하는 방식과 동네 서점의 방문 여부를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편의성 때문에 대형서점과 온라인을 통해 책을 구매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네 서점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필요한 책을 직접보고 빨리 사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동네 서점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형서점과 온라인의 편리함에 못 미쳐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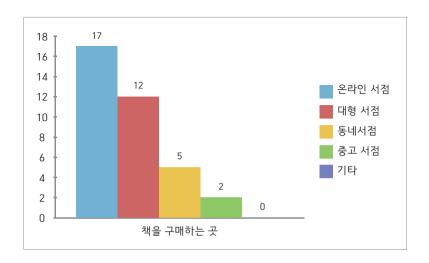
이어 동네 서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에 기반을 두고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 '동네 서점의 사회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다수 사람이 '지식의 집합체'이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대답했고 그다음은 '동네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적 지표'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동네 서점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네 서점 고유의테마섹션'과 '공간 자체의 특별함'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 보면, 동네 서점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바로 소통의 공간이자 네트워크의 장임이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방문하고 싶은 동네 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서점 공간 자체의 탁월함을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기대를 고려하며 동네 서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이 주는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 서점이라는 문화 공간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판 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개입을 통한 삶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⁵ 설문지 전문은 부록 참고

다음의 설문 결과는 3달에 한 번 이상 서점을 방문하는 35명의 응답으로, 서점 이용 자들의 동네 서점 실 이용도 및 견해가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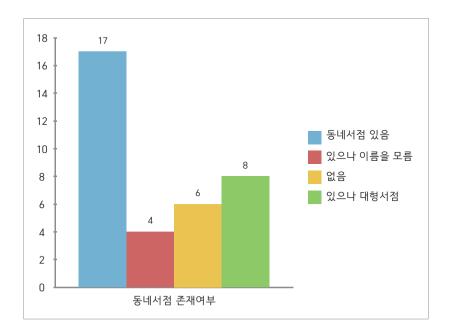
(1) 소비자들이 책을 구매하는 방식6



설문 응답자 35명 중 17명이 온라인을 통해 책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대형서점 구매자는 12명, 동네 서점 구매자는 5명이었다. 온라인과 대형서점을 동시에 이용한다고 대답하는 중복 답변자도 한 명 있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매할 뿐 아니라 자주 가는 서점은 책을 사지 않아도 들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책을 편하게 사는 방식과 동네 서점을 들르는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들은 서점을 굳이 책을 사지 않더라도 영감을 받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 산책코스 중 일부로 활용한다.

⁶ 설문항목 3번째 질문 '책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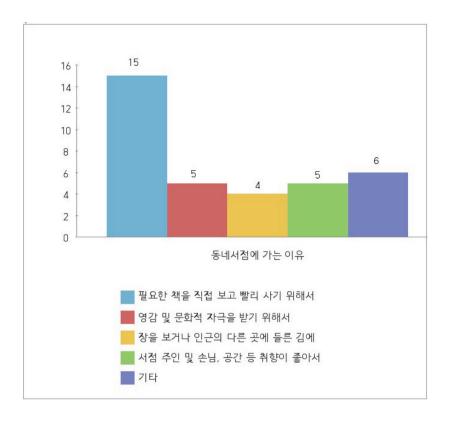
(2) 동네 서점에 대한 소비자/주민 인지도7



설문 응답자의 90%는 서울에 거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50%, 2년 이상 거주자는 80%였다. 이 중에서 자신의 동네에 어떤 동네 서점이 있는 지와 자신의 동네 서점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35명 중 총 25명이었으며 그중 8명은 대형서점이 곧 자신이 사는 동네의 유일한 서점이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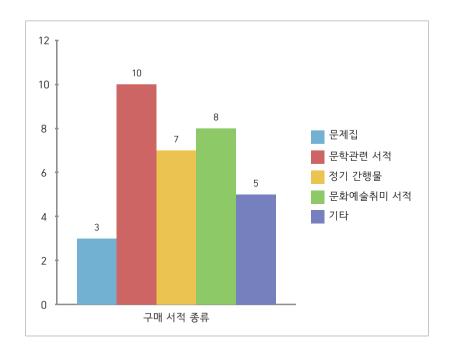
⁷ 설문항목 5번째 질문 '살고 계신 동네에 서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3) 동네 서점 이용실태8



필요한 책을 직접 보고 빨리 사려는 이유를 제외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네 서점에 가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구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기타항목의 응답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들르거나 누군가 만나기 위한 약속 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들른다 고 대답하였다. 서점은 공간 자체가 다른 공간에 비해 문화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점주인이 의도한 장소성이 아니라 이용자에 의해 무한히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⁸ 설문조사의 6번째 질문 '동네 서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종류의 책은 무엇인가요?'



동네 서점을 방문했을 때 사는 서적의 종류와에 대한 조사는 다수 이용객의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5% 이상이 26세 이상으로, 10대 이용자는 설문조사의 표본에 포함되지 못했다. 많은 동네 서점은 실제로 문제집을 사기 위해 10대가 가장 많이 방문한다. 10대를 제외한 다른 이용자들은 문학과 문화・예술・취미 서적을 찾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응답자들은 서점에서 추천하는 책, 전공분야 서적을 구매하거나 즉흥적인 구매 혹은 서점 방문이 늘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⁹ 설문조사의 6번째 질문 '동네 서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종류의 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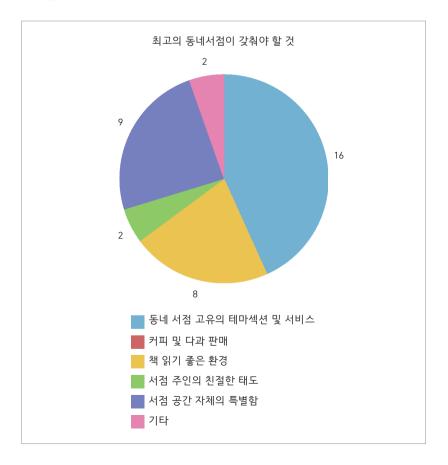
(4) 동네 서점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 조사



65%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네 서점의 사회문화적인 역할10에 대해 '지식을 소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동네 서점을 방문하는 이유는 책의 빠른 구매가 절반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점을 방문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동네 서점은 대형서점 혹은 온라인 서점에 대항하여 편의 제공 경쟁을 하기보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책을 소개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문화가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¹⁰ 설문조사의 13번째 질문 '동네 서점의 사회문화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은?'

다음은 사람들이 자주 들르고 싶은 동네 서점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방문하고 싶은 서점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로는 '동네 서점 고유의 테마섹션'이 가장 우선시되는데 이는 동네 서점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이유와도 같다.¹¹서점 방문객의 증가가 동네 서점의 수익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동네 서점은 지식의 장이자 소통의

¹¹ 설문조사 9번째 질문항목 '동네 서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온라인 서점의 편의성에 미치지 못해서 응답한 경우가 33%, 콘텐츠가 빈약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23%였다.

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서점 이용자들의 이용현황 및 기대를 종합해보면, 동네 서점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동네라는 물리적 영역으로 소통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서점이 지향하는 어제다를 공감할 수 있는 이들과의 네트워크 및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둘째는 다양한 책 소개, 인문학 강좌, 다양한 워크숍 등 동네의 새로운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다.

셋째는 동네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적 토양의 지표로서 주제에 맞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문화 \cdot 예술적인 영감을 제공하며, 책을 읽는 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서점 공간 자체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03

지속가능한 동네 서점, 다자간 연대 경영사례: '스토리지북앤필름'을 중심으로

- 1_동네 서점과 동네 카페와의 연대
- 2_소비자를 서점경영 참여자로의 전환
- 3_문화공간들과의 연대 및 문화행사 주최
- 4_미디어를 활용한 동네 서점 이용자의 증대 및 관리

03 · 지속가능한 동네 서점, 다자간 연대 경영사례: '스토리지북앤필름'을 중심으로

1 동네 서점과 동네 카페와의 연대

해방촌에 위치한 '스토리지북앤필름'은 2015년 8월 16일, '언더그라운드 마켓'을 주최한 바 있다.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고 인디음악가의 공연으로 이어진 이 문화행사는 당일 200명이 넘게 참가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해방촌 동네카페인 '콩밭커피'와 함께 쓰는 지하 워크숍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콩밭커피는 로스팅을 하는 공간으로, 서점은 제작관련 워크숍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다. 행사는 당일 방문객뿐 아니라 서점과 카페의 당일 매출을 크게 증대시켰을 뿐 아니라 종일이어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주변 분식집 등의 동네 음식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성북동 오디너리북샵은 서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카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손님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두 서점 모두 서점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와의 연대가 아니라 동네에서 자신과 취향이 가장 맞는 주인장이 운영하는 카페와의 유대관계에 근거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서점과 카페라는 공간은 주인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와 문화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한 번 이어진 협력관계는 신뢰도가 높게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고객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행사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

2_소비자를 서점경영 참여자로 전환

스토리지북앤필름은 서점운영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한다. 주인이 없을 경우 서점에 자주 들르는 프리랜서 작가들이나 10대 탈학교 학생들이 인턴처럼 활동하면서 서점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가게를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경우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스토리지북앤필름은 단골손님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 서점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현상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스토리지북앤필름이 독립출판 관련 문화생산 자들의 네트워크 장이 되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독립출판 워크숍을 통해 대중에게 독립출판의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워크숍에 참여하는 강사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장을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스토리지에는 서점 운영문제와 출판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자 중심의 멤버십이 형성되어 있다.

대학로 이음책방 역시 고등학생 인턴이 서점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스토리지북앤필름은 원래 손님이었던 독립출판인들이 함께 워크숍을 꾸리는 파트너이자 서점운영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료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서점 경영의 참여자로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공간들과의 연대 및 문화행사 주최

스토리지북앤필름의 워크숍 공간에서 열었던 '언더그라운드 마켓'이나 갖가지 독립출판물들을 전시 및 판매했던 '연어전'은 스토리지북앤필름이 단독으로 주최한 문화행사에 가까웠다면 2015년 10월 2일부터 한남동 '테익아웃드로잉' 카페 1층에서 열린 '책집' 전시는 다양한 책방들과의 연대 산물이다. 전시공간은 한남동 '테익아웃드로잉' 카페가 제공하였지만 전시기획의 대부분은 스토리지북앤필름이 맡아 진행하였다. 이 전시는 전국 각지에 새로 생긴 서점들을 대상으로 서점을 대표하는 서적 20종을 추천받아 소개 및 판매하는 전시인데 전국의 독립출판 관련 서점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 스토리지북앤필름만이 할 수 있는 문화기획이었다. 스토리지북앤필름의 이와 같은 행보는 서점이 주민 간 소통의 장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산자

의 장이자 문화공간들의 네트워크 장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가 열리는 '테익아웃드로잉' 카페와 스토리지북앤필름은 각각 '한남동'과 '해방촌'에 위치함으로써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문화공간들이었기에 이 행사는 두 공간의 협력을 통해용이하게 치러질 수 있었다.

4 미디어를 활용한 동네 서점 이용자의 증대 및 관리

새로 생긴 많은 서점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책과 서점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 중 스토리지북앤필름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서점으로 꼽힌다. 일시적인 업데이트가 아니라 꾸준한 서점 소식의 타전, 그리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은 서점이 단순히 상업공간이 아니라 문화의 보고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서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 외에 동네 미디어가 서점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마을 미디어가 많이 생겨났는데 스토리지북앤필름이 있는 동네에는 '남산골 해방촌'이라는 동네잡지가 꾸준히 발간 중이다. 마을/동네 미디어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금방 시들해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남산골 해방촌'은 점점 디자인과 내용이 동네주민과 외부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동네 문화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 잡지는 새롭게 생긴 동네 가게들, 산책코스, 그리고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관련 사업 등을 전하는데 읽기 쉽고 보기 좋아 점점 독자층이 늘어가고 있다. 이 잡지는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행사 등을 기록 및 홍보한다는점에서 동네 서점이 동네미디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 준다.

오디너리북샵이 위치한 성북동에서는 '성북동 마을사람들'이라는 마을잡지가 서점에서 무료 배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점관련 이야기도 실린 바 있다. 동네미디어가동네 서점의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네의문화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꾸준히 기록될 수 있다면 서점이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와 달리 동네 서점으로서의 의미가 주민들에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04

정책 제언

- 1_현 마을사업비의 교부방식 전환
- 2_서점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체계화
- 3_할인율 0%의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
- 4_동네 서점의 청년고용 지원

04 / 정책 제언

1 현 마을사업비의 교부방식 전화

현재 마을관련 사업으로 개인과 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부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자칫 정부지원의 예산이 없을 때에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한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을미디어 혹은 마을문화공간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동네의 공간 혹은 단체들이 협력관계를 구축한 공동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마을미디어를 새롭게 기획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이미 운영해오고 있는 동네 서점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미디어, 즉 협력적 관계망을 구축한 프로젝트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사업비의 예산 집행책임이 한 팀이 아닌 다자간의 책임으로 분산되고, 여러 참여자의 검증을 통해 예산을 꼼꼼히 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동네를 위한 일에 사업비가 쓰인 뒤의 효과를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이 누릴 수 있게 된다.

2 서점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체계화

독일은 직업학교 중에 '서점학교'가 존재할 정도로 서점운영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지혜와 지식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네마다 여러 종류의 동네 서점이 즐비한 독일은 서점운영은 물론이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문학 및 독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고전 문학뿐 아니라 현대 문학 등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수업을 통해 독서 교육 과정 자체가 현 출판문화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네 서점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전국 서점 중 소수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2 이는 서점 공간을 잠시 빛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점이라는 공간이 어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서점을 위한 지원책은 특히 서점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효과밖에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체계화된 서점 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서점주인과 서점 자체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할인율 0%의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도서 판매가의 10% 할인, 5% 적립 가능'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에 비해 할인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정가제에 0%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동네 서점들은 덩치 큰 대형서점들을 당해낼 수 없다. 이미 자본의 여유를 가진 대형서점들은 책의 할인율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동네 서점들은 할인율이 아예 없어져야만 다른 서점들과 제 살 깎는 경쟁을 할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0% 할인율의 도서정가제 실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도서관, 구청, 마을문고 등에서 동네 서점의 서적을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확산시킬 기회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4 동네 서점의 청년고용 지원

새로이 생기고 있는 독립출판서점들은 운영자의 연령대가 20~30대인 경우가 많다. 기존의 동네 서점은 운영자가 50대 이상이 많은데 이는 서점 운영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롭게 정보를 전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방식에 미숙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동네에 거주하면서 동네 문화와 온라인 홍보에 해박한 청년들을 동네서점의 홍보 및 운영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점주인에게는 변해가는 사회에 발맞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직장의 경험을 제공받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¹² 독서신문 책&삶, 2013년 5월 1일 기사, '서점에서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참고문헌

굿독굿갓컴파니, 2010, "Bookstores", 「OhBoy!」 23호. 김병록백창화, 2015, 「작은 책방, 우리 책 쫌 팝니다」, 남해의봄날. 프로파간다, 2015, "Bookshops", 「그래픽」 33호. 함성호, 2014, "장소와 공간 그리고 시간", 「인천아트플랫폼」 45호. 헤드에이크, 2015, "멈출까?", 「헤드에이크」 13호,

부록

1. 동네 서점 이용 실태 조사 설문

- 1.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 2. 현재 살고 계신 동네에 얼마나 거주하고 계신가요?
 - 0 1년 미만
 - o 1년 이상 2년 이하
 - o 2년 이상 3년 이하
 - 0 3~5년
 - o 5년 이상
- 3. 책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책을 구매하는 경로는 중복 표기 가능)

- o 온라인 서점
- o 대형 서점
- o 동네 서점
- o 중고 서점
- o 책을 사지 않는다
- o Other:
- 4. 책을 1년에 몇 권 구입하시나요?

(기간에 대한 기준은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예: 한 달에 5~7권')

5. 살고 계신 동네에 서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서점이름을 기입, 없다면 근처에 있는 서점이름 혹은 없음 표기)

- 6. 동네 서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종류의 책은 무엇인가요?
 - o 문제집
 - o 소설, 시 등 문학작품
 - o 잡지 등 정기간행물
 - o 문화예술취미 관련 서적
 - 추천해주는 대로
 - o Other:

7. 동네 서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대형서점이 동네에 있을 때 기타에 동네 서점이 대형서점이라고 써주세요)

- o 한 달에 2회 이상
- 두 달에 1히 이상
- o 세 달에 1 회 이상
- o 6개월에 1 회
- Other:

8. 동네 서점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o 필요한 책을 직접보고 빨리 사기 위해서
- o 영감 및 문화적 자극을 받기 위해서
 - 장을 보거나 인근의 다른 곳에 들른 김에
- b 문화행사 및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서
- 서점 주인 및 손님, 공간 등 취향이 좋아서
- o 동네 서점은 들려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에
- o Other:

9. 동네 서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주 가신다고 앞서 대답하신 분 역시 서점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기해주세요)

- o 콘텐츠 빈약
 - 서점 공간 자체의 문화적 편안함 부족
- o 대형 및 온라인의 편리함에 못 미쳐서
- 0 너무 바빠서
- o Other:

10. 동네에 서점 이외에 자주 들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기타란에 상세히 기입해주셔도 됩니다.)

- o 마트, 병원, 세탁소 등의 (편의시설)
- 도서관, 체육관, 공원 (문화-여가시설)
- o 카페 및 레스토랑 (음식점 및 문화공간)
- o 친구집 등 (사적 공간)
- o Other:

11. 현재 살고 계신 동네가 다른 동네와 다른 점을 설명해주세요

(이 질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의 동네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점에서 동네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3. 동네 서점의 사회문화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은?

- o 지식의 집합체 (많은 책 소개 및 보유)
- o 교육의 공간 (인문학, 워크숍 등)
- o 커뮤니티 공간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 o 동네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적 지표
- o Other:

14.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동네 서점의 모습을 갖추려면?

(당신이 들르고 싶은 서점의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 동네 서점 고유만의 테마 섹션 or 서비스 커피 및 간단한 다과 판매 0
- 0
- 0
- 책 읽기 좋은 환경 서점 주인의 친절한 태도 0
- 공간 자체의 특별함 0
- Other:

2. 연구에 참여한 동네 서점 사진 기록

(1) 다시서점 (서울 용산구 한남동)



2015.2 이전 직전



2015.10 이전 후



다시서점 김경현 대표

(2) 도원문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도원문고 이창연 대표

(3) 동아서점 (강원도 속초시 교동)





(4) 북바이북 (서울 마포구 상암동)





(5) 스토리지북앤필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6) 오디너리북샵





(7) 이음책방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이음책방 조진석 대표

(8) 프루스트의 서재





프루스트의 서재 박성민 대표

(9) 피노키오 책방 (서울 마포구 연남동)









피노키오 책방 대표

(10) 헬로인디북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





* 동아서점, 북바이북, 오디너리북샵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3. 서점대표의 동네 서점에 대한 인식 조사 서신 인터뷰

■ 다시서점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용산구 한남동
-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 1년 6개월
-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인스타그램이나 잡지에 소개된 걸 보고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행사, 카페운영, 워크숍 진행 등)
- →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집중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동네라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 →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 예전의 동네라는 개념과는 다른 듯. 장사를 하는 동네는 그냥 장사를 하는 동네, 사는 동네는 그냥 내가 사는 동네, 놀러 가는 동네는 놀러 가는 동네처럼. 특히 서울은 교통의 편의나 인구 과밀로 예전 동네의 개념을 적용하기란 어려운 듯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 이전에 서울시 신택리지 사업을 통해 조사를 했지만 한정된 자원을 조사한 것이고

특정 인물만을 조사했으므로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계층이나 사람마다의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 그렇지 않음. 30분이면 다른 서점을 갈 수 있는 서울이기에 기존 개념은 무색하고 이 장소의 특성이 유기적으로 뒤섞인다고 봄.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한남동 근방에는 독립출판을 판매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주 오는 사람은 있지 만 문화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헥로인디북스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그건 어떤 장사든 마찬가지인 것으로 봄. 서점을 특별한 공간으로 보기에는 무리 가 있는 듯.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책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동네 주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 있는 서점 이지 '동네에 있기 때문에'가 되는 것은 동네 주민에게 기대고 기대하는 바가 크 게 느껴짐. 그것보다 기본적인 것을 더 고려하고 있음. 왔던 손님을 기억하려 한 다거나 하는.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들려주세요.

→ 워크숍이나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음. 그건 다른 서점들이 잘하고 있고 '책이 있는 공간'과 다른 것의 접점을 생각함.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 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편하게 있다가 가셔도 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손님도 주인도 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 동아서점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강원도 속초시 교통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4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저의 아버지께서 문구와 서적을 함께 취급하는 문구사를 운영하셨고,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 뒤를 이어 제가 서점을 맡게 되었습니다.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물론 속초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 고객층이지만, 서점을 확장 이전한 이후로는 관 광객들의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행사, 카페운영, 워크숍 진행 등)
- → 확장이전과 함께 작은 커피머신을 구입했고,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한동안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동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 속초는 지방 소도시 중에서도 아주 작은 편입니다. 면적의 의미에서든 생활 반경 의 의미에서든 속초시 자체를 동네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 이곳에서 태어났고 50년 이상 살았으니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습 참고서는 지역 학교들과 지역 학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 니다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 물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속초는 '동네 서점'보단 '대형서점'에 목말라 있는 실 정입니다.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이사한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생겨난 문화가 있다고 섣불리 말하긴 힘듭니다. 다만 이 근방에 중형서점이 둘이나 있으니 시민으로선 이 동네를 책과 부리시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서점을 들릅니다. 평상시 제 생활 반경이 이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서점을 자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중 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 동네 서점의 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조언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냥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들려주세요.
- → 카페와 연계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입니다.

-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 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 책 위에 음료를 올려놓지 말아 주세요.
- 북바이북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상암동
-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 2년
-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5년 전 상암동으로 이사를 왔고, 당시 미디어시티로서 한창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국, IT 등 업체들의 이전으로 미디어시티만의 색깔을 띤 재미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암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동네였으므로 동네를 잘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동네주민 및 미디어시티에서 근무하시는 방송국, IT 관련 직장인분들이 많습니다.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 → 우선 독자분들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서점을 만들고 싶어 북바이북에서 커피무료로 먹는 방법을 명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책꼬리 (책리뷰) 쓰기, 독서카드 작성, 구매한 책 다시 팔 수 있는 서비스 등 꾸준히 북바 이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작가번개(작가강연회), 미니콘서트, 책관련 전시, 팝업스토어, 크래프트 강좌 등을 통해 꾸준히 독자들과 작가님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행사, 카페운영, 워크숍 진행 등).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 네.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상암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주말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변화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동네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 니다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네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아무래도 방송국 직원분들을 비롯해 유명하신 분들도 그냥 손님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많이 오는 동네 서점'으로 소문이 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에 패널이나 출연을 자주 하시는 작가님들은 작가번개 행사에 더 우호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홍대 땡스북스입니다.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서점이 있는 동네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은 당연합니다. 북바이북도 상암동 특성 에 더욱 타킷팅된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 동네사람, 혹은 고객인 원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반영하고 변화할 수 있는 수용력 이 필요합니다.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득려주세요.

→ 가까운 거리에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미니콘서트 등 행사를 좀 더 규모 있게 가져가고 싶고, 미디어시티에 타킷팅된 서점 운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상암동 외다른 지역도 적합한 기회가 있으면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 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혼자 와도 뻘쭘하지 않은 공간이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 스토리지북애핔름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해방촌에 위치한 스토리지북앤핔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 3년째 운영 중입니다.
-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충무로에 있었다가 이전을 결정한 후 시골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를 중점적으로 돌아보다 해방촌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동네 주민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행사, 카페운영, 워크숍 진행 등)
- → 언더그라운드 북마켓, 연어전, 책집 전시 등을 비롯한 행사와 리틀프레스, 드로잉 워크숍 등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 이전한 지 벌써 3년 차이다 보니 동네 분위기나 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과 쉽게 교류한다거나 친해지는 편은 아니어서 인근 몇 군데의 가게 외에는 잘 아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 해방촌으로 이전하고 저희 책방 첫 슬로건이 '해방촌에 위치한 유일한 독립출판 물 서점'이었습니다. 뚜렷한 인식은 아니더라도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서점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저희 책방이 생긴 이후에 금속 공예나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업실, 사진가 작업실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작업실들이 생기고 인근에 새로운 책방이 이 사를 왔으며, 또 다른 책방이 현재 오픈을 준비 중인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연남동의 헬로인디북스, 홍대 유어마인드 등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중 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아무래도 주변에 친한 가게인 콩밭커피와의 파트너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체 워크숍 진행을 책방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콩밭커피의 로스팅 공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이라 책방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는 동네 서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 이래저래 시간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으나 책방이란 공간도 결국 손님들과의 약속이기에 일정 시간은 문을 여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들려주세요.

→ 현재 이전이나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 오디너리북샵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유영하고 계신가요?
- →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 10월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자리 잡은 곳이 성북구 안암동이었습니다. 낯선 동네보다 는 익숙한 곳에서 서점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또 너무 번화한 곳은 어울리지 않는 다고 판단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중 높은 건물이 없이 골목마다 한옥이 마주보 는 이 곳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처음 서점을 열었을 때는 외부에서 SNS를 보고 오는 손님이 90% 정도였어요. 1년 동안 자리를 잡으며 동네 주민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 지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행사, 카페운영, 워크샵 진행 등)
- → 현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골목마켓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에서 진행하는 다른 행사에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올해 말 이쪽으로 이사 올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네란 유대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네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했잖아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김장을 함께하고, 아이들은 집 앞 골목에서 놀았고요. 자연스럽게 이웃의 사정이나 동네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동네주민이라는 유대감도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것이 변해서 그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지만, 변한 지금도 동네라는 것은 유대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잘 알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이곳에서 계셨던 동네상인과 이 제 막 자리를 잡은 젊은이들 간에 접점이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특히 옆 가게와 앞 가게는 비슷한 또래의 주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친하게 지내요. 주민분들은 이 동네에 무슨 이런 가게가 생겼나 하는 걱정 반 호기심 반의 눈길로 보셨어요. 걔 중에 이미 단골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성북동은 오래된 동네이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아서 동네에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북동을 알리려는 행사도 많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도 많죠. 역사나 정보를 알기 위해 서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에는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처음에는 당연히 '동네 서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동네 서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결심한 동네 서점이라는 아이덴티티는 항상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감히 문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책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동네에 스며들었다는 느낌은 있어요. 또 확실히 거리에 젊은 친구들의 비율이 늘었고요.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대학로에 동양서림과 이음책방을 자주 갑니다. 거리상 가깝기도 하지만, 동양서 림은 60년 이상 된 오래된 서점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음책방은 책의 셀렉션이 굉장히 좋고요. 두 서점 모두 배울 점이 많아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무시할 수는 없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작은 서점의 문화를 향유하는 분들은 대부분 카페 문화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오디너리북샵은 서점에서 근처 카페로 이어지는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 꾸준히 이용하는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옆 가게(소품숍), 앞 가게(식당)가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어 한 골목에서 식사와 취미생활이 가능하기에 주말이면 찾아오는 분들이많습니다. 제시하신 의견에 딱히 이견은 없습니다.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바람직한 태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들려주세요.

→ 이곳에서 향후 몇 년간은 서점을 계속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 골목도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변할 예정이라 서점의 운명이어떻게 될지 주시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운명은 건물주 손에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임대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좀 더 동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 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우리 동네에 이런 서점이 있어 참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오디너리북샵입니다. 함께 오래오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u>프루스</u>트의 서재

-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 서욱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 1년 가까이 됩니다
-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 쭉 살아왔던 동네이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가장 서점이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책방을 목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 동네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 5. 지속가능한 서점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행사, 카페운영, 워크숍 진행 등)
- → 사진전을 했었고 그림책의 원화전을 할 계획입니다. 소소하게 낭독모임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동네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 → 네. 제가 사는 곳입니다. 동네는 지역 공동체인 거죠. 현시대에 와서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유명무실해졌지만 꾸준히 지역상생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이어나가 는 곳도 많이 있고 좋은 선례가 되어 점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 제가 사는 곳은 높은 지대에 있어 주위가 달동네였습니다. 재개발로 가까운 이웃 과 친구들이 대부분 떠났어요. 제가 자주 가던 상점도 주인이 수없이 바뀌고 사라

졌죠. 잘 안다는 의미로 동네의 변화된 과정을 지켜본 것이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 나의 서점이 동네 주민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인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아쉽게도 아직은 없네요.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같은 성동구에 위치한 동네책방에 종종 갑니다. 저와 고민하는 부분이 비슷하니 까요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소통의 창구가 커진다는 의미로 볼 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서점 이 가진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지를 항상 고 민해야 함 것 같습니다.
-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 이웃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요.
-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이전, 지속, 확장 등)에 대해 들려주세요.
- → 지역 서점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한 공간에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감내하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동네 서점으로 해볼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시도하면서 개인적인 역량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 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편하게 들러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헬로인디북스

1. 어느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홍대전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연남동 재래시장 골목에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2.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가요

→ 2013년 11월에 오픈하여 2년 정도 되었습니다.

3. 현재 지역에서 서점을 열게 되신 계기는?

→ 서울에서 자주 가는 동네, 좋아하는 동네가 유일하게 홍대이고 독립출판물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곳이 홍대여서 책방을 열고 싶은 동네는 고민 없이 홍대였습니다. 너무 번잡한 메인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을 택하여 처음엔 창전동, 현재는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서점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동네 주민인가요? 아니면 특정 부류의 손님 방문이 더 많은가요?

→ 베스트셀러나 참고서, 패션지와 같은 대중들이 찾는 기성출판물이 아닌 자가출판 물을 취급하는 서점이라서 동네 주민보다는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연 남동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분들이 주 방문 층입니다.

5. 지속가능한 서점 운영을 위해 특별히 시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 책 판매 외에는 별다른 수익모델이 있지 않습니다. 책과 제작자에 대한 소개로 손님들이 책에 공감하고 구매까지 이뤄지는 행위가 많아지기를 바라나 2년간 책 방을 운영해보니 일정량 이상은 판매율이 오르지 않는 듯하여 책 제작자들의 또 다른 창작물인 문구류와 소품의 비중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점이 위치한 동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 네. 책방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 7. 현 동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네 상인, 주민-손님들, 동네 역사 등)
- → 이사 왔을 당시에는 연남동이 매우 고즈넉한 동네였는데 3년 동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소규모 가게들과 마켓들이 많아지면서 연남동 일대는 동네주민보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동네 슈 퍼, 동네 세탁소 등 동네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네를 떠나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있는데 같이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8.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영하시나요?
-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주민분들이 찾아오는 책방은 아니어서 동네 서점보 다는 독립출판물서점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9. 귀 서점이 그 동네에 자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가 있나요?
- → 동진시장 골목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골목엔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방은 헬로인디북스와 그림책방 피노키오, 이렇게 두 곳인데 맛집에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 편안하게 책방에 들어와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집 대기시간에 독립출판물과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10. 운영하시는 서점 이외의 자주 가는 다른 서점이 있으세요?
- → 홍대 북스리브로와 같은 가까운 대형서점을 종종 갑니다.
- 11. 이 연구 결과, 동네 서점은 주변 상권과의 파트너십(특히 동네 카페) 그리고 동네 미디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서점의 다각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익도 증진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다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 우선 목표는 책방의 아이템만으로 책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타 상점과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업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책방을 잘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다만 같은 분야인 그림책방 혹은 만화방 등의 책방 과 같이 한 가지 테마로 추천책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2 동네 서점이 가져야 학 바람진한 태도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 동네 서점에 대한 태도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책 진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님에게 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해주는 역할을 통해 손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3. 앞으로의 서점 운영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 처음 책방운영의 목표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잘 들려주는 많은 활동(전시, 위크숍, 마켓등)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14. 서점을 방문할 미래의 손님/동네 주민 등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 → 이익이 목적이 아닌 책,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한 장이라도 진심으로 봐주세요
- * 도원문고, 이음책방, 피노키오 책방의 인터뷰는 참고문헌 「헤드에이크 폐간호 '멈출까?'호」에 인터뷰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은연구 좋은서울 15-06

동네 서점이 동네 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10월 9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